

신중마약 엑스터시와 마약중독

최근연예가에 마약태풍이 불고 있다. 또한 연예계 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음에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한다. 엑스터시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값이 싸고 알약 형태여서 먹기 편하고 독성이 약하다는 것이 수요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수의 청소년이 엑스터시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로, 미국에서는 “아담”, “엑스터시” 또는 “엑스티시”로 불리는 MDMA는 환각성인 암페타민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합성 향정신성 약이다. 하지만 엑스터시는 필로폰보다 약효가 3배 이상 강해 남용하면 체내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과다 복용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은 한때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라도 성인이 된 후에 뇌손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치료방법

1. 외래치료

약 23의 급성중독은 외래치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협조적이어야 한다. 신체 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하고 Benzodiazepine계 약물 (Chlordiazepoxide 25~50mg 하루 4회로 시작, 차차 감량함)과 필요시 수액 및 고단위 비타민 B복합체를 공급하면, 금주 24시간 경과 후부터 항주제를 사용하여 치료해 볼 수 있다.

2 입원치료

급성중독이 심하거나 금단에 의한 진전섬망을 보일 때와 심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 우려, 정신병이 합병되어 있을 때 단기입원이 좋다. 진전섬망의 치료는 안정되고 쾌적한 분위기, 충분한 영양공급, 수액, 비타

민 B복합체 투여 및 감염이나 신체 손상을 예방한다.

3 정신사회적 치료

우선 환자에게 알코올리즘 내지 사용장애 등 병명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러한 병에 대한 인식이 치료의 첫 단계이다. 치료자와 환자와의 신뢰와 우호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치료가 좋다. 이때 중독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부정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 특히 배우자가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가족치료도 유효하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이 마시는 Codependency를 예방하도록 하고 중독자들이 모인 동질집단의 집단치료도 효과적일 수 있다.

4 약물치료

금단 후, 진전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hlordiazepoxide가 선호되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고, 알코올과 교차내성이 있고, 반감기가 길고, 값이 싸기 때문이다. 25~50mg을 2-4시간 간격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투여한다. 진전섬망시에는 50~100mg을 4시간마다 투여한다. 투여기준으로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때, 맥박이 분당 110 이상일 때, 체온이 38.3도 이상일 때, 오심, 구토, 진전이 있을 때 투여를 반복한다. 안구진탕, 운동실조, 언어장애, 진정-졸음 등이 나타날 때 그 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약물은 금단 후 생기기 쉬운 경련발작의 억제에도 유효한다.

[자료인용-최신정신의학(대표저자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민성길)] 